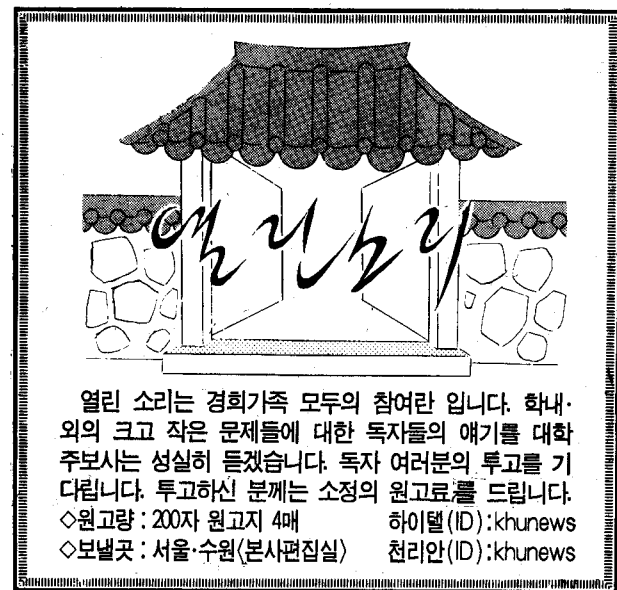




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애기를 대학주보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투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4매
◇보낼곳 : 서울·수원(본사편집실) 천리안(ID): khnews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셋째, 동전던지기, 요구르트를 한꺼번에 몇개 다 마시면 2만원을 준다는 등의 돈 장난하는 게임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캠퍼스가 놀음장도 아니고 그러한 돈 장난보다는 차라리 선물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와 같이 몇가지 주의해 본다면 정말 멋진, 재미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내년의 축제를 기대해 본다.

김상현
(경정대 경영학부 1)

도서관 여자화장실 학생중심구조로 개선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여학생들이라면 다들 한뼘쯤 화장실 이용의 불편함을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중앙도서관은 그 대학의 심장이라고 흔히들 이야기 한다. 책가열람실의 불편함은 책부족 등은 이미 식상한 이야기가 된 지 오래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과 더불어 하나 더 이야기 하라 하면 여학생들의 화장실 이용의 불편이다. 중앙도서관에는 총 6개의 화장실이 있고, 그 중 열람실 앞에 있는 화장실 4개는 모두 남자화장실이다. 따라서 여학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멀리 가야하고 그 화장실 수의 부족과 더불어 휴전의 불편함까지 내재하고 있다. 도서관

내의 휴전 구역이 잘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3층의 휴게실에서 여학생들은 '휴전'은 물론 '휴식'을 할 때도 눈치를 주는 남학생 때문에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휴전구역의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여자화장실의 개선(남자 변기가 계속 있거나 하는 등의 문제들)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여학생들의 수가 남학생들의 수에 비해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적다 많다는 수의 문제가 아니라라고 생각한다. 속히 개선이 있기를 바란다.

고세희
(국문 1)

의미없는 성년식 지성인답게 치뤄야

지난 5월19일 법적으로는 성인이 된 학생들이다. 스무살이 된 사람들은 성년식을 치뤘다. 꽃가게에는 어김없이 꽃이 날 개동진돈 팔렸고, 학교교차로 술집은 성인이 된 사람들과 축하해주는 사람들로 엄청나게 붐볐다. 서로 축하해주고 축하받는 사람들의 얼굴엔 기쁨이 넘쳤다. 그러나 외국에서 도입된 지 얼마안된 지성인으로서 그런 리치 웨치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는 성년식이라는게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졌다.

그 이유는 5월19일 성년식이 평소와 다른없었기 때문이다. 평소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갖는 술자리이다. 단지 다르게 있다면 꽃을 들고 가는 사람들과 길 거리에 오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정도이다. 그 날의 문제점을 두가지 정도로 말하고 싶다.

첫째는 술이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술로 시작하고 술로 끝내는 습관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술이라는 것은 대학을 원활하게 해주고 분위기를 돋운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행사는 몰라도 성년식이라면 술에 중점을 두는 것 보다는 대학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 왜냐하면 술에 만취해 버리면 성년식에

서 느꼈던 생각들이나 다짐은 술자리이후에 모두 잊어버리고 머리만 아프기 때문이다. 몇 시간동안의 술자리보다 몇 분동안의 진지한 대화가 차라리 더 나을 지도 모르겠다.

둘째는 성년식을 이끌어가는 주변의 모습들이다. 성년식은 반드시 술을 마셔야 한다. 그것도 평소보다 더 독하게, 더 많이, 내가 생각하는 성년식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을 고치고 자신을 책임질 줄 아는 젊은이의 새로운 출발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메시지도 없이 성년식은 이런거야 하며 폭탄주를 만들어 완상하는 모습은 정말로 아쉬웠다. 내년에도 성년식이 있을 텐데, 후배들이 그런 모습을 그대로 따라할 것으로 생각하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어쨌든 5월19일은 성년식이야.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날을 성년식으로 인정했고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찾아야 한다. 단순한 술자리가 아닌 그 지경일도 우리의 것으로 정착해야 할 때이다.

김민규
(경정대 2)

수강신청 보완 필요 학생편의 외면 유감

서울 캠퍼스는 26일부터 2학기 수강신청에 들어간다. 그런데, 수강 신청은 대학 생활에서 한학기 농사의 모내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내기 때 모자리를 잘못 잡으면 농사를 망치듯 자신에게 알맞은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면 한학기를 헛들게 보내야 한다. 더구나, 취업문이 바늘 구멍 만큼 좁은 요즘에는 더욱 그러하다.

흔히 인생은 줄서기에 달렸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우리 학교 수강 신청제도에서 다시 한번 선착순의 중요성을 느낀다. 신청일 당일 새벽 일찍 일어나 정경대 전산실 입구에 다다르면 이미 줄서기 줄은 어느 마음의 허무하게 만들었다.

물론 특정 과목의 수강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수강 회차가 많기 때문에 당면한 현상인지는 모르다. 그러나, 학생에게 정경대로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는 것도 학생의 권리이다. 그 무거운 권리가 선착순에 의해 쉽사리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불합리한 현상에 대해 필자는 학교측과 학생측에 대해 한가지씩의 제안을 하려 한다.

먼저 학교측은 현행 수강 신청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학사관리의 전산화는 실제로 엄청난 효율성을 부여하기는 한다. 그러나, 신청 단말기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반감시키고 있다. 따라서, 학교측은 신청 단말기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PC통신을 이용해 수강 신청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

학생들은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적합한 과목을 신청해야 한다. 단순히 학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과목만 골라서 선택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적성에 알맞은 과목을 신청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을 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채수강
(정경대 경영 2)

불편한 학내교통 학생위한 개선 필요

내가 대학생이 되어 우리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자마자 벌써 3개월째가 되어가고 있다. 이전 학교의 구석구석도 제법 알게 되었고 학교에 다니는 것도 익숙해졌다. 하지만 바쁘게 지내던 알지 못했던 우리학교의

불편함이 느껴지고 있다. 내가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스쿨버스의 문제점이다. 나는 강남역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온다. 차가 밀리지 않는 날에는 보통 40분정도 걸리지만 차가 밀리는 날이 많다. 9시 수업을 위해서 8시나 8시 10분쯤에 강남역에 도착하면 학생들이 가장 많을때다. 입석 줄도 길어서 2대를 보낸 후에야 탈 수 있을 정도로 많을때다 있다. 그런데 스쿨버스는 정차하게 10분정도 기다려야 한다. 어떤 날은 2대가 10분간격으로 온 다음에 다음차를 기다렸는데 거의 한 시간간격에 온 적도 있다. 물론 오는 길에 사정이 생겨서 정차한 간격으로 도착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침에 학생들이 많은 만큼 배차간격을 좁혀서 자주 스쿨버스를 보내서 학생들의 편의를 봐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도 얼마전엔 버스까지지 올랐다. 서울에서 학교까지 운행하는 일반화차의 7백원짜리 버스는 아니냐. 버스요금의 공공요금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함부로 올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쿨버스 요금은 언제나 올릴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마만큼의 가격을 올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너무나 부족하다. 알 권리의 무시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용돈을 받아쓰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식당과 같은 학교시설이 있는 것이다. 스쿨버스로 마한가지로 학생들이 좀 더 편하고 저렴하게 학교에 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좁은 아침 시간에 배차간격을 줄이고 스쿨버스 요금의 동결 및 아저씨들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김지나
(사회과학부 1)

내가 본 한국 ④ 맵고 짭 음식 문화 우리전통 잘 모르는 교포들

김나타사
(우즈베키스탄, 경희대 언어교육연구원 한국어과장)

나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알고 있었다. 한국에 와보니 그 '개'라고 하고, '간장'은 '지리'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방아는 거의 없지만 아궁이는 집집마다 바닥에 있다. 잔치를 치를 때 손님들이 백반 이상 모여 들면 음식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궁이가 없으면 불편하다.

시골 사람들을 도시에 산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같은 교포라도 음식 차이가 있다. 시골에서 사는 한국 요리를 많이 해서 먹는다. 하지만 도시에서는 대부분 평소에는 냉채 나는 음식

을 안먹으려고 한다. 첫 번째 이유는 여러 민족이 같이 어울려 사니까 너무 지독한 냄새가 나는 마늘이나 김치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도시에서는 시골보다 여러 가지 식재료 종류가 있기 때문에 빵을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요리를 자주 먹는 편이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포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봐도 남자·여자 구별 없다. 여자들은 모두 다들 자신이 하는 방식대로 절을 한다. 무덤도 서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모두 묘석을 새운다. 풍습이 달라지면 사고 방식도 변해나간다.

경희발전기금 명단

여러분의 관심과 작은 정성에 경희의 밝은 미래를 여망합니다. 출연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탁자 명단은 접수순입니다. (97년 5월17일~5월 23일)

△이승래(아이템폴 미디어 대표,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73학번, 1차분)	1천만원
△조완준(수원 관리자)	1백만원
△박경일(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교수)	2백만원
△고환진목회(대표 최원수)	20만원
▶경희사랑기부금	
△조남성(교육대학원 교육행정학과, 원우회장)	26만6백30원
△김준현(기획관리실)	29만3백80원
△박성애(경희초등학교 교사)	79만10원
△조호호(의대 의학과교수, 학생처장, 6차분)	67만원

경희대학교 결산공고

법인회계 자금계산서(법인 일반업무회계)
(1996년 3월 1일부터~1997년 2월 28일까지)

총합대차대조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부속병원회계 종합)

1997년 2월28일 현재

(단위: 백만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1. 유동자산	38,502	나. 미소유자구입자산	23,774
1) 현금자산	35,017	1. 기말유동자산	23,781
(1) 현금	17,982	2. 기말유동부채	7
(2) 현금	15,600	2.1. 유동자산	23,774
(3) 현금	2,382	2.1.1. 유동자산	23,774
(4) 현금	16,406	2.1.1.1. 유동자산	23,774
(5) 현금	1,150	2.1.1.1.1. 유동자산	23,774
(6) 현금	15,256	2.1.1.1.1.1. 유동자산	23,774
(7) 현금	629	2.1.1.1.1.1.1. 유동자산	23,774
(8) 현금	307	2.1.1.1.1.1.1.1. 유동자산	23,774
(9) 현금	322	2.1.1.1.1.1.1.1.1. 유동자산	23,774
(10) 현금	2,214	2.1.1.1.1.1.1.1.1.1. 유동자산	23,774
(11) 현금	1,848	2.1.1.1.1.1.1.1.1.1.1. 유동자산	23,774
(12) 현금	362	2.1.1.1.1.1.1.1.1.1.1.1. 유동자산	23,774
(13) 현금	985	2.1.1.1.1.1.1.1.1.1.1.1.1. 유동자산	23,774
(14) 현금	985	2.1.1.1.1.1.1.1.1.1.1.1.1.1. 유동자산	23,774
(15) 현금	985	2.1.1.1.1.1.1.1.1.1.1.1.1.1.1. 유동자산	23,774
(16) 현금	985	2.1.1.1.1.1.1.1.1.1.1.1.1.1.1.1. 유동자산	23,774
(17) 현금	985	2.1.1.1.1.1.1.1.1.1.1.1.1.1.1.1.1. 유동자산	23,774
(18) 현금	985	2.1.1.1.1.1.1.1.1.1.1.1.1.1.1.1.1.1. 유동자산	23,774
(19) 현금	985	2.1.1.1.1.1.1.1.1.1.1.1.1.1.1.1.1.1.1. 유동자산	23,774
(20) 현금	985	2.1.1.1.1.1.1.1.1.1.1.1.1.1.1.1.1.1.1.1. 유동자산	23,774
(21)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22)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23)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24)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25)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26)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27)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28)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29)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30)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31)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32)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33)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34)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35)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36)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37)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38)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39)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40)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41)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42)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43)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44)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45)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46)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47)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48)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49)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50)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51)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52)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53)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54)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55) 현금	985	2.1. 유동자산	23,774
(56) 현금	985	2.1	